

서구

수상뮤지컬 蜀川

『수상뮤지컬 갑천』, 대한민국의 대표축제로 도약



현해탄을 건너간 수상뮤지컬 갑천 “스고이(대단해요)”

지난 8월 장대한 스케일과 참신한 소재로 20만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화제를 모았던 국내 최초, 최대, 최고의 수상뮤지컬 갑천이 일본 가가와현 다카마쓰市的 초청을 받아 다카마쓰市 겨울축제에 참여하였다.

구는 지난 3월 다카마쓰&가가와 아트 페스티벌 총감독이자 시코쿠대학 총장을 지낸 하시모토가 서구청을 방문해 ‘수상뮤지컬 갑천’을 소개받고 준비과정을 벤치마킹한데 이어, 7월에는 총연출자인 오카우치 쇼죠가 내한, 내용과 추진과정을 취재해 높은 관심을 보인 바 있다.

결국 지난 10월 내방한 한일교류협회 회장인 오가와 카즈히로가 서구청을 방문, 다카마쓰 겨울축제에 ‘수상뮤지컬 갑천’의 사진과 영상을 전시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고 서구청에서 이를 수락, 현해탄을 건너게 된 것이다.

‘수상뮤지컬 갑천’은 일본 현지에서 연습장면과 공연실황을 담은 사진과 동영상을 전시해 축제 관계자 뿐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었는데, 특히 1,000여명의 주민이 자원봉사로 참여했다는 사실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화홍보실장은 “수상뮤지컬 갑천은 자치단체의 축제로는 드물게 해외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이벤트”라며 “철저한 준비로 내년에는 더 멋진 공연을 선보여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알아주는 축제로 육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